

VA에 첫 한인 크리스천 학교 설립

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센터빌에 첫 한인 크리스천 스쿨이 설립됐다. ‘더 센트 크리스천 스쿨(The Sent Christian School, 교장 제니퍼 박)’은 와싱턴중앙장로교회(담임목사 류웅렬)가 설립한 사립학교로, 오는 9월 5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. 연령은 18개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모집하고 있다.

제니퍼 박 교장은 “미국 공립학교들이 급격하게 급진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해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. 12년 전부터 학교 설립을 계획해 왔는데, 기도 가운데 설립을 하게 됐다. 철저하게 성격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

와싱턴중앙장로교회

‘더 센트 크리스천 스쿨’ 학생 모집



으로 쓰임 받는 리더를 양성한다는 정신으로 운영된다”고 말했다.

첫해인 올해는 한 학년에 한 학급인 소수 정예로 운영된다. 전교생 85명 정원에, 프리스쿨 과정은 이미 정원이 차 지원자는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며 초등학생 정원만 20명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다. 박 교장은 “18개월에서 4살까지의 유아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이 가능해 직장인 부모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한편, 지원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. 그러나 “기독교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학부모나 학생이 인지해야 입학이 가능하다”고 학교 측은 전했다.

▷문의: 703-815-1002, admissions@thesentschool.org

김정원 기자